

古朝鮮時代의 基礎醫學

김 인락*

The basic medicine of the Gojoseon(고조선) dynasty

In-Rak, Kim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Semyeo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basic medicine of the Gojoseon(古朝鮮) dynasty, especially 5 fields which are the theory of yin-yang(陰陽論), the theory of 5 progressive phasis(五行論), the theory of mind-body(心身論), Seon-gyo(仙敎), acupuncture(鍼術).

The theory of yin-yang can be studied in the point of contents of it, not the name of it. Whan-in(桓因) is the god of sky, Woong(熊) is the god of earth. Whan-woong(桓雄), who is the son of Whan-in(桓因), came down from the sky, turned into a man. Woong(熊) lived in the cave, eating garlic and wormwood for 21days, got out of it and turned into a woman. The changes occurred by the mutual aid of Whan-woong and Woong.

The theory of 5 progressive phasis can be founded in the archery. The bow and arrow is made of cucumber, horn and ligament of cow, glue made from airbladders of sciaenoid fish, which belong to mock(木). Beejeongbeepal(非丁非八) and make strong one's abdomen(腹實) belong to soo(水), empty out one's chest(胸虛) belongs to whar(火), thrusting(前推泰山) belongs to mock(木), shooting(發如虎尾) belongs to geom(金). Basically mind and body have no difference. Mind without body does not exist. Exorcism excites the exorcist to the condition of whar(火).

There are 3 parts, as treatment, prevent, regimen, in the medicine. 2 parts as idealism and realism are in regimen. Seon-gyo(仙敎) belongs to the idealism of regimen. In China, this became Taoism(仙道) later.

The art of acupuncture was developed in the Gulf of pohair(渤海灣).

【Key words】 yin and yang(陰陽), 5 progressive phasis(五行), archery(弓術), body and soul(心身), herb(本草), prescription(方劑), acupuncture(鍼術)

1. 序論

한국 한의학의 과거를 이해하므로서 현재의 한 의학을 재인식하고 앞으로 한 의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으며 한 의학 연구와 교육수준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95년도에 보건복지부가 주관이

* 世明大學校 韓醫科大學

되어 韓國 韓醫學史 再定立이란 연구결과가 나오게 되었다.¹⁾ 이를 바탕으로 한국 한의학사중에서도 고조선시대의 기초의학부분을 보다 더 세밀히 연구하려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기초 의학과 임상 의학을 구분하는 것은 오늘날로서는 원전, 의학사, 생리, 병리, 본초, 방제, 경혈, 진단, 예방의학 등을 기초의학으로 보고 나머지를 임상의학으로 한다. 하지만 고대로 올라갈수록 이러한 구분은 점점 모호해져서 오늘날의 기준으로 과거의 것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감소한다. 뿐만아니라 의학이란 의미조차 옛날과 오늘날의 것은 같지가 않다. 따라서 연구초점이 지나치게 흐려지는 것을 막기위하여 연구 범위를 陰陽論, 五行論, 心身論, 仙敎, 鍼術 5가지로 한정하였다. 陰陽論은 음양이란 용어에 초점을 두지아니하고 음양의 내용에 초점을 두어 壇君史話²⁾에서 음양론을 찾았다. 오행론도 마참가지로 궁술에서 오행의 내용을 살폈다. 心身論은 고조선의 사회구조에서 무의 지위와 역할 그리고 굿행위에 대한 의학적접근으로, 仙敎는 양생이란 측면에서, 침술은 『素問』 「異法方宜論」에 근거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II. 本論

2-1. 陰陽論

2-1-1. 陰陽論과 壇君史話

한의학의 기본원리는 陰陽五行이다. 음양은 세상을 음과 양이란 2가지로 나누어 관찰하고 표현하는 것이어서 어떤 대상이 주어지면 이를 음과 양 2 방면 모두로 관찰하고 표현하여야 한다. 음하나라든지 양하나로서만 관찰하고 표현한다면 약속체계에 어긋난다. 오행도 마참가지이다. 따라서 순음 순양은 생각은 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고조선시대 단군사회에서 음양이란 용어는 나오지 아니하지만 陰陽의 내용은 찾을 수가 있다.

『三國遺事』의 壇君史話 가운데 앞부분만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古記』에 이르기를 옛날 桓因의 지차아들 桓雄이 늘 천하에 뜻을 두어 인간세상을 탐내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굽어 살펴보니 삼위·태백이 사람들을 널리 이롭게 할 수 있는 곳 이므로 곧 天符印 세계를 주어 내려가 인간세상을 합리적인 사회로 만들도록 하였다. 桓雄은 무리 삼천을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 神壇樹아래로 내려와 그곳을 神市라 하였으니 그가 이른바 桓雄天王이었다. 바람을 관장하는 어른·비를 관장하는 어른·구름을 관장하는 어른을 거느리고 곡식·인명·질병·형벌·선악 등을 주로 맡아 보살피되 무릇 인간의 3백 6십여 가지 일을 두루 맡아 인간사회에 있으면서 그곳을 합리적인 사회로 진화시켰다.

1) 신순식 외8명. 『한국한의학사 재정립』. 한국한의학연구소. 1995.

2) 일반적으로 壇君神話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壇君史話라고 하였다. 이는 여기에 담겨진 내용이 단순히 神들의 이야기인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역사가 축약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의 근거는 윤내현의 『고조선 연구』, 일지사, 1994, 132-142.에 자세히 나와 있다.

이때 熊과 虎가 동굴 속에 함께 살면서 항상 桓雄에게 빌기를 진화하여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이에 환웅은 신령스러운 쑥 한 자루와 마늘 스무 개를 주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먹으면서 백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는다면 곧 사람몸을 얻게 되리라고 일러주었다. 熊과 虎가 이것을 얻어 먹으면서 조심을 한지 3·7일 만에 熊은 여자의 몸이 되었으나 虎는 조심할 수가 없어서 사람의 몸을 얻지못하였다.

웅녀는 더불어 혼인할 사람이 없으므로 늘 神壇樹 밑에서 아이를 갖게해달라고 빌었다. 桓雄이 사람으로 변신한 뒤 웅녀와 혼인하고 웅녀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아 壇君 王儉이라 불렀다.³⁾

『帝王韻紀』에는 壇君史話を 다음과 같이 실고 있다.

『本紀』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上帝 桓因에게 지차아들이 있었으니 이름을 雄이라 하였다고 한다. 이 雄에게 내려가 三危·太白에 이르러 크게 인간을 이롭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雄이 天符印 세 개를 받고 귀신 삼천을 거느리고 太白山 마루에 있는 神壇樹 아래 내려왔다. 이분을 桓雄天王이라 부른다고 한다.” 손녀에게 약을 먹여 사람이 되게 한 뒤 壇樹神과 결혼시켜 아들을 낳게 하였다. 이름을 壇君이라 하고 朝鮮의 땅을 차지하여 왕이 되었다.⁴⁾

단군사화는 환인의 아들이 인간세상을 탐내었다는 것으로 시작하듯이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 등이 세상이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창조주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들며 인간을 비롯한 온갖 것을 만들었다는 내용은 없다. 이처럼 세상의 기원에 관하여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시작이 없으니 끝도 없고 따라서 세상이 종말을 맞게 되리라는 언급은 전혀없다. 시간은 나선형으로 흐르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생각이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다. 『舊約聖書』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고, 결국에는 세상을 심판하고 종말을 맞게한다는 것과 비교가 된다.

그리고 세상은 절대자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교감에 의하여 생성되어진다. 陰陽論으로 볼 때 하늘은 純陽을, 땅은 純陰을 상징한다. 純陰·純陽이란 實際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獨陽不生, 孤陰不長’이라고 하듯이 純陰·純陽으로서는 그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가 없다. 따라서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이 교감하지 않으면 변화가 생기지 아니한다.에서 “하

3) “『古記』云, 昔有桓因庶子桓雄, 數意天下, 貪求人世, 父知子意, 下視三危·太白, 可以弘益人間, 乃授天符印三箇, 遣往理之, 雄率徒三千, 降於太白山頂神壇樹下, 謂之神市, 是謂桓雄天王也. 將風伯·雨師·雲師, 而主穀·主命·主病·主刑·主善惡, 凡主人間三百六十餘事, 在世理化. 時有一熊一虎, 同穴而居, 常祈于神雄, 願化爲人. 時神遣靈艾一炷·蒜二十枚曰, 爾輩食之, 不見日光百日, 便得人形, 熊虎得而食之, 忌三七日, 熊得女身, 虎不能忌, 而不得人身. 熊女者無與爲婚, 故每於壇樹下, 呪願有孕. 雄乃假化而婚之, 孕生子, 號曰壇君王儉.”(『三國遺事』卷1「紀異」「古朝鮮」條).

4) “『本紀』曰, 上帝桓因有庶子曰雄云云. 謂曰下至三危·太白弘益人間歟. 故雄受天符印三箇率鬼三千而降太白山頂神壇樹下, 是謂桓雄天王也云云. 令孫女飲藥成人身, 與壇樹神婚而生男, 名壇君據朝鮮地域爲王.”(『帝王韻紀』「卷下」「前朝鮮紀」에 실린 저자 자신의 주석)

늘과 땅이 서로 감응하여 만물이 생겨난다.”는 말과 같다.

‘환인’은 원래 순수한 고대 한국어였을 것이고, 이를 발음이 비슷한 한자로 적었을 것이다. 따라서 환인은 한자의 의미보다는 발음이 중요하다고 본다. 한국어의 원형을 완전하게 복원하기는 어렵지만 ‘환인’은 하늘의 신을 의미하는 환한님이나, 밝은님을 한자로 표기하기 위하여 이 음과 가까운 漢字를 취한 것으로 추측된다.⁵⁾ 우리말에 환하다가 밝음을 나타내듯이 桓人은 밝은 님으로 하늘의 신을 뜻한다.

熊이 동굴속에서 햇빛을 보지않으므로서 純陰의 상태를 유지하였고, 桓人이 하늘의 신으로 환한 님이란 말을 한자로 음역한 것이므로, 雄은 땅의 신으로서 곰이란 의미를 취할 것이 아니라 소리를 취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곰은 고어에서는 ‘감’이다. 우리말에 꺾둥이, 꺾꺾하다란 말이 의미하듯이 곰은 어둠과 관련이 있다. 환인이 하늘이나 밝음과 관련이 있듯이 熊은 땅이나 어둠과 관련이 있고, 대감, 영감과 같이 높은 분을 뜻하기도 한다.⁶⁾

하늘의 신 桓因은 유목민족이 중요시하고, 땅의 신 熊은 농업민족이 중요시한다. 하늘의 신은 인간세상으로 내려오고 땅의 신은 인간세상으로 나오는 것이다.⁷⁾

하늘의 신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므로서 순양의 상태에서 양은 많고 음은 적은 상태로 바뀌게 된다. 땅의 신은 굴에서 해가 빛나는 땅으로 나오므로서 純陰의 상태에서 陰은 많고 陽은 적은 상태로 바뀌게 된다.⁸⁾

이렇게 땅으로 내려오고 나오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하늘의 신은 지차아들이란 신분이 땅으로 내려오게되는 원동력이었다.⁹⁾ 땅의 신은 마늘과 쑥을 먹은 것이 원동력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桓雄이 인간세상에 내려오게 된 것은 桓因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桓雄이

5) 유동식, 『한국무교의 역사와 구조』,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85: 30.

6) 崔鳳烈이 번역한 『한국상고사』(서울: 교보문고, 1994: 34.)에서는 桓人은 밝음, 흰색을 의미하고 熊은 어둠이나, 검은 색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熊을 곰 토테미즘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를 따르다면 곰은 겨울잠을 자고 범은 자지않는 것으로 설명이 된다.

뿐만아니라 역사적인 사실로 본다면 檀君史話는 한민족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환인시대는 떠돌이생활을 하던 무리사회단계였고, 환웅시대는 농업을 하며 불박이 생활에 들어갔던 마을사회 단계를 의미한다. 환웅과 웅녀가 혼인하는 것은 여러 마을들이 연맹을 맺었던 고을나라 단계에 이르렀음을 뜻한다. 그리고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하여 한민족이 탄생하게 되었다. 桓雄은 이주민이고 雄이나 虎는 토착민이다. 윤내현: 고조선연구, 일지사, 1994, 138-142. 이들이 결합하는 과정은 강압적이지 않고 평화적이었다. 雄과 虎가 스스로 인간이 되고자 하고 스스로 임신을 원하는 것에서 이를 엿볼 수가 있다. 이와는 달리 고구려 建國史話에서는 강압적이었음을 엿볼 수가 있다.

7) 유동식, 위의 책, 33.

8) 김인락, 『東洋醫學의 生死論 研究』, 慶熙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9: 50-51.

9) 아이들은 하늘에 계속 남아 대를 잇지만 나머지 아들들은 분가를 해야만 한다. 이러한 구조는 고구려와 백제의 시조사회에서도 확인된다. 고구려의 시조 주몽은 부여왕의 자식이 아니었다. 그리고 백제를 세운 온조와 비류 역시 주몽의 원래 아내에서 난 아들은 아니었다.

스스로 인간세상을 다스리고 싶다고 간청했기 때문이다. 熊이 인간으로 변신하게 된 것도 桓雄의 독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熊이 스스로 인간이 되기를 간청하였기 때문이다.¹⁰⁾

그리고 熊이 인간이 되고 난 뒤에도 桓雄의 신통력에 의하여 동정녀로 임신한 것이 아니다. 熊이 스스로 임신을 원하였고 桓雄이 남자로 변신한 뒤에서야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陽은 능동적이며 陰은 수동적이라 고유의 특성이 그대로 드러난다. 하지만 능동적이든 수동적이든 가치는 대등하다.

이처럼 세상은 陰과 陽의 교감에 의하여 변화한다고 보았다. 결코 陽이든 陰이든 어느 한 쪽의 의사에 의하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이들에게서 태어난 아기가 딸이 아니라 아들이었다. 따라서 중심은 아무래도 하늘의 신에게 있다. 고조선사람들은 하늘의 신과 땅의 신 중에서 하늘의 신을 숭배하였다고 본다. 우리 민족이 熊의 자손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손이라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¹¹⁾

2-1-2. 쑥과 마늘과 동굴 속의 음양적 의미

熊과 虎가 인간이 되기를 간청하자 桓雄이 내린 처방은 동굴속에서 햇빛을 피해 지내면서 쑥과 마늘만 먹는 것이었다.

햇빛보기를 금하라고 한 것은 純陰의 상태를 유지하라는 말이다. 여자가 시집가기전까지 처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와 같다. 熊은 동굴속에서 햇빛보기를 피하면서 쑥과 마늘만 먹기를 지켜 여인이 되었는데 虎는 이를 지킬 수가 없었다. 수많은 음식물 중에 쑥과 마늘만 먹으라고 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서는 약과 음식은 '藥食同源'이라 하여 뿌리가 같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4기와 5미로서 본다면 약은 기미가 한쪽으로 편중된 것이고 음식은 약보다는 심하지 않은 것이다. 한약재로 사용되는 것중에 대추나 생강, 밤, 울무, 파의 흰부분과 수염뿌리, 도라지, 참깨, 호도 등은 식품으로서도 많이 이용된다. 뿐만아니라 처방을 낼 때에는 금해야 할 음식물을 알려준다. 따라서 쑥과 마늘이 약이나 식품이냐는 논의는 그다지 의미가 없다.¹²⁾

봄이 되면 쑥은 들판에서 파릇파릇 돌아나게 되고, 이를 보는 이로 하여금 누구나 생기를 느끼게 한다. 쑥뿐만 아니라 냉이나 썸바퀴등도 마찬가지이다. 실험실에서 성분 분석을 한다든가 동물 실험을 한 것은 아닐지라도 정상인이라면 누구나 느끼게 마련이다. 봄에 파릇파릇 돌아나

10) 生이란 말의 의미도 創造가 아니라 變化이다. 『老子』40장에 “天下萬物生於有, 有生於無”라고 하였는데 無는 아무 것도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과 저것이 차이가 없다는 말이다.(김중열, 『중국철학산고』1, 서울: 온누리, 1988: 149-150.)

11) 단군사화를 음양론으로 본 것은 김인락의 博士學位論文 『東洋醫學의 生死論 研究』, 慶熙大學校 大學院, 1989년과 보건복지부 연구개발사업인 신순식 외8명, 『한국한의학사 재정립』, 한국한의학회연구소, 1995.에서 김인락이 쓴 「상고시대의 의학」을 좀더 발전시킨 것이다.

12) 중국 周나라에서도 의사를 5종류로 나눈 것 중에 食醫가 있었다. 이처럼 의사와 요리사는 근원이 같았다.

는 식물을 보고서 생기를 느끼는 것은, 봄이나 아침이 되면 생기를 되찾는 것처럼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오래동안 축적된 본능이다.

쑥이나 냉이 등을 보면 생기가 돋는 것처럼 응답이나 녹용, 개구리, 뱀 등을 보신용으로 애용한다. 사슴뿔은 해마다 빠지지만 봄이 되면 새로이 돌아나고 개구리, 곰 등도 겨울 동안 죽은 듯 하지만 봄이 되면 생기를 되찾는다. 이는 마치 그믐달로 사라진 달이 초생달로 되살아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일리아데(M. Eliarde)는 사슴, 개구리, 곰 등을 달동물(Lunar Animal)이라고 하였다. 생기를 북돋우는 데는 음식물중에서 겨울기운을 잘 길러 봄의 생기가 왕성한 것을 먹는 것이 방법의 하나이지만 인간자신이 겨울기운을 잘 기르는 것도 방법의 하나이다. 후자를 응용한 방법으로서 단식을 들 수가 있다. 내장조차 음식물을 소화, 흡수도 하지 않고 쉬게 되므로 이 보다 더 깊은 겨울잠을 찾기로 쉽지가 않다. 그리고 단식을 하고난 뒤에 음식물을 먹기 시작할 때가 생기를 기르는 과정으로서 단식의 효과를 판가름하게 되는데 이를 잘 못한다면 생기는 오히려 손상되고 만다.

『素問』 「四氣調神大論」에서는 겨울동안에 겨울기운을 잘 기르지 아니하면 봄에 가서는 봄의 생기가 줄어든다고 하였다. 이를 반대로 응용한다면 봄의 생기를 왕성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겨울동안에 겨울기운을 잘 기르는 것이 방법의 하나가 된다. 쑥이나 냉이, 썸바퀴 등은 겨울동안의 찬기운을 견디어 내었기에 봄에 생기가 왕성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실제로 쑥은 뜸을 뜨는 데 사용하고, 볏은 것은 불임증치료에 사용한다. 마늘도 쑥과 마찬가지로 생식기를 따뜻하게 데워주어 생식력을 높이는 식품이자 약물이다. 腎은 겨울기운처럼 차가운 것이 원칙이지만, 태과, 불급이 모두 병이듯이, 무한정 차가워지면 질수록 좋은 것은 아니다.

동굴속에서 햇빛을 보지 않고 있는 것은 腎의 陰을 기르는 것이고 겨울기운을 기르는 것이지만 전혀 열기가 없다면 씨앗도 얼어죽을 것이고 불씨마저 꺼지게 된다. 쑥과 마늘은 불씨를 간직케 하고 지나치게 차가워지는 것을 방지한다. 계절로 본다면 차가운 겨울에서 따뜻한 봄으로 되게 한다. 陰陽으로 본다면 陰중의 陰에서 陰多陽少한 상태로 바뀌게 한다.¹³⁾

2-2. 五行論

2-2-1. 五行論과 弓術

오행을 도표로 나타내면 水와 火는 상하에 있고 木과 金은 좌우에 있다. 하지만 목금은 무한히 좌우로 나아가지는 아니하고, 수화는 무한히 상하로 나아가지는 하지아니한다. 계절로는 겨울이 봄으로 봄은 여름으로 변하듯이, 화가 여름기운으로 위에 있지만 결국 가을이 되면 내려오며,

13) 桓雄이 熊과 虎에게 애초에 말하기는 마늘과 쑥을 먹으면서 햇빛보기를 금하길 100일간 하면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하였는데, 실제로는 삼칠일만에 熊이 여자가 되었다. 100일과 21일은 분명히 다르지만 의미는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 본다. 100은 100일 기도를 하거나 100일 잔치를 하듯이 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삼칠일은 출산한 뒤에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는 기간이다. 3魂 7魄이란 말이 있는데 오행으로 본다면 3은 木, 7은 火의 數이지만 九宮法에서는 7이 金에 속한다. 魂과 魄은 크게 보면 몸과 마음으로서 인간의 전체를 의미하고, 작게보면 마음중에서도 陰의인 것이 魄이고 陽의인 것이 魂이다. 따라서 木과 金이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다. 三, 七일도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수는 겨울기운으로 아래에 있지만 결국 봄이 되면 올라 오게 마련이다. 그리고 토는 특이하게도 두가지 속성을 지닌다. 하나는 토가 목화금수와 대등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목화금수에 종속되는 경우이다. 1년 365일로 본다면 전자는 목화토금수가 각각 72일 정도씩을 차지하는 경우이고 후자는 목화금수가 각각 72일정도씩을 차지하고 토는 18일정도씩 4등분되어 목화금수끝에 붙는 경우이다. 甲乙木 丙丁火 戊己土 庚辛金 壬癸水라고 하는 경우가 전자에 속하고, 寅卯木 辰土 巳午火 未土 申酉金 戌土 亥子水 丑土라고 하는 경우가 후자에 속한다.

토가 양면성을 띄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푸는 열쇠는 오행이 계절변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으로 본다. 토를 계절과 관련지우면 長夏라고도 하고 四季라고도 한다. 장하는 여름과 가을사이에 엄연히 계절 하나로 있다. 사계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끝에 18정도씩 차지하고 있어서 다른 계절보다는 비중이 떨어진다. 기후로 본다면 土는 濕과 관련이 있다. 토가 습기와 관련이 있고 장하가 여름과 가을사이에 존재하는 것이라면 계절로는 장마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1년의 계절 변화에 있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뚜렷하지만 장마는 이들보다는 뚜렷하지가 않으므로 토는 장하와 사계 양면성을 띤다고 본다.

土의 성질이 두가지이듯이 五臟에서는 脾가 肝 心 肺 腎과 대등하기도 하고 때로는 종속적이기도 하다. 『素問』「玉機真藏論」에서는 脾가 자기 자신의 맥을 정상적일 때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병적일 때에만 드러난다고 하였다.¹⁴⁾ 이처럼 脾의 역할중 하나는 肝 心 肺 腎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어서 다른 것들보다는 비중이 떨어지는 느낌을 준다. 그러하더라도 해부학적으로 본다면 脾臟이 하나를 차지하고 있어야 하므로 독립성과 종속성 양면을 동시에 지닌다.

이러한 예는 「宣明五氣篇」에서 찾을 수가 있다. 왕빙본에서는 五行에 충실하여 “五邪所見, 春得秋脈, 夏得冬脈, 長夏得春脈, 秋得夏脈, 冬得長夏脈.” 이라고 하였는데 이를 『太素』「四時脈診14」에서는 長夏를 삭제하고 가을에는 봄의 맥을 얻고 겨울에는 여름맥을 얻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봄과 가을이 서로를 억제하고 여름과 겨울이 서로 억제하는 방법을 취하였다.¹⁵⁾ 이런 五行의 내용은 고조선의 弓術에서 찾을 수가 있다.¹⁶⁾

2-2-2. 활재료와 오행

활은 재료가 7가지가 있는데 대나무, 물소뿔, 소등심, 뽕나무, 참나무, 민어부레풀, 화피이다. 그리고 화살은 신우대와 꿩깃털이다. 이를 오행으로 살펴보자.

14) 脾善者不可得見, 惡者可見.

15) 오행이 계절변화와 관련이 있고, 土는 양면성을 지닌다는 것은 김인락의 「肝者 罷極之本에 對한 五行論의 解釋」, 『대한원전외사학회지』, 1994.에 자세히 나와있다.

16) 五行의 근본원리는 이미 잘 알려져있으므로, 여기에서는 各論으로서 五行原理를 구체적인 것에서 찾아보려는 것이다. 弓術은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행해지는 것으로서, 五行의 原理를 찾을 수 있는 좋은 예가 된다.

대나무: 오행에서 木은 봄기운을 상징한다. 봄이 되면 땅속에서 새싹이 돋아난다. 영어에서 봄을 spring이라 하듯이 아래에서 위로 치솟는 상이다. 대나무는 이를 가장 잘 상징한다. 그리고 『素問』, 『平人氣象論』에서는 현맥을 연하고 약하여 마치 손짓으로 누군가를 부르는 것과도 같고 장대의 가는 끝을 들었을 때 대나무가 휘청거리는 느낌과도 같다고 하였다.¹⁷⁾ 이 느낌은 낚시대에 걸린 물고기가 달아날려고 바둥댈 때 낚시대가 휘청거리는 감과 같다.

쇠뿔: 쇠뿔은 대나무앞면에 붙인다. 사슴뿔이나 코뿔소뿔이 모두 손아 오르는 기운이나 전전하는 기운이 있으므로 약재에 사용된다. 쇠뿔은 활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활줄을 엄지손가락으로 당길 때에도 사용하는데, 손가락이 아픈 것을 들기 위하여 엄지손가락에 쇠뿔을 가락지 모양으로 하여 끼게된다. 爪屬肝이란 말은 인간의 손톱을 생각하면 그다지 실감이 나지 아니하지만, 매나 독수리 등이 먹이를 낚아 쫄 때에 발톱을 활짝 폈다가 이를 낚아채는 장면을 생각한다면 쉽게 이해가 간다. 손톱 발톱으로 먹이를 낚아채는 그 기상이 바로 오행에서 목에 속한다. 마참가지로 소가 뿔을 앞세우고 돌진하는 상은 오행에서 목에 속한다.

뽕나무, 아카시아 나무: 활의 대부분은 대나무가 차지하지만 양쪽끝은 힘을 많이 받는 부위이므로 산뽕나무나 아카시아나무로 만든다. 대나무로서는 이렇게 굵은 것이 국내에서는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참나무: 손잡이부위를 참나무로 만들었는데 요사이는 다른 것으로 대용한다.

소등심: 肝主筋이라고 할 때 筋은 요사이 말하는 근육이 아니라 ligament나 tendon을 의미한다. 뼈와 뼈를 잇고 근육과 뼈를 이므로 대단히 질기고 탄성이 있다. 활한자루 만드는데 소 4마리분의 심줄이 필요하다. 불행하게도 요사이 소들은 농사짓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먹고서 살만 찌는 것이 주 임무이므로 힘줄이 질기지 아니하여 심이 자주 끊어진다.

민어부레퓔: 민어부레퓔은 아교와는 달리 겨울에 날씨가 추워지더라도 갈라지거나 부러지지 아니하고 탄성을 유지한다.

이처럼 활재료들은 오행으로 볼 때 모두가 木에 속한다.

2-2-3. 활과 계절

오행의 목은 오장으로는 간과 통하고 계절로는 봄과 통한다. 따라서 활은 따뜻할 때가 가장 쏘기에 좋고 탄력도 뛰어나다. 『論語』 첫머리에 “學而時習之, 不亦悅乎” 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배우고 익히는 대상은 6예이다. 6예를 현대식으로 본다면 체육, 지육, 덕육이다. 말타는 것과 활 쏘는 것이 체육에 속한다. 時習之란 때에 맞게 익히는 것으로 시간이 위주이다. 활쏘기는 봄이 적당하고 말타기는 가을이 적당하다. 활을 보관할 때에도 봄처럼 따뜻한 곳에 두어야 한다. 옛말에 갓난아기는 윗목에 채울지라도 활은 아랫목에 둔다는 말이 있는데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요사이는 점화통을 만들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게 한다. 겨울이 되면 활은 맥상으로 석맥처럼 힘차게 된다. 봄에는 쉽게 당겼던 활도 이때에는 당기기가 힘들게 된다. 그러나 활이 셀 뿐이지 탄

17) “平肝脈來, 濡弱(如)招招, 如揚長竿, 曰肝平, 春以胃氣爲本.”

다른 구절과 비교를 한다면 모두 맥상을 설명하고서 다시 구체적인 것에 비유를 하였다. 그러므로 ‘濡弱’ 다음에 ‘如’자를 보충하여야 한다. 脾脈에서도 ‘和柔’다음에 ‘如’자를 보충하여야 한다.

력은 줄어들어 화살이 힘차게 나가지 아니하고 쏘고난 뒤 상쾌함도 적다.

활을 엮을 때에도 센 곳과 약한 곳 틀어진 곳 등을 가려 바르게 하는데 센 곳은 불을 쬐어 세력을 약화시킨다. 마잡가지로 여름이 되면 활은 물러져서 탄력을 잃는다. 태조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을 할 때 내세운 이유중 하나가 장마철이라서 민어부레 풀이 녹으므로 활이 위력이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활은 여름용과 겨울용 그리고 봄가을용 3자루가 있어야 한다. 여름에 사용한 활을 겨울에 사용하려면 지나치게 세어 당기기가 힘들다. 반대로 겨울용을 여름에 사용하면 지나치게 물러져서 쏘는 맛이 나지아니한다.¹⁸⁾

2-2-4. 활과 각음

五音은 角, 徵, 弓, 商, 羽라고 하는데 이는 높낮이보다는 음의 빛깔 다시말하면 음이 주는 느낌을 의미한다. 봄이 되면 날씨가 따뜻해지고 만물이 소생하여 땅속에서 위로 돌아나듯이 목음의 성질도 이와 같아야 한다. 그러므로 각음이란 서양음악의 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바람소리, 빨과 빨이 부딪치는 소리, 나무와 나무가 부딪치는 소리, 바이올린이나 첼로, 가야금, 거문고 등 현악기 소리, 대금 피리 등 목관악기소리이다. 이런 소리들은 용수철이 튀어오르듯이 생기를 북돋우어 준다. 반대로 商음은 가을과 같은 느낌을 주어야 한다. 어딘지 싸늘하고 슬퍼지며 몸과 마음이 가라앉은 느낌이어야 한다. 금관악기 소리, 칼가는 소리, 칼날이 부딪치는 소리등이다. 활을 제대로 쏘았을 때 활줄이 공기를 가르며 소리와 활에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화살이 날아가는 소리는 모두 角음에 속한다. 활을 쏘는 순간 힘을 더주면 간신히일 때 화내는 것처럼 소리도 달라져서 신경질적으로 들린다.

2-2-5. 弓術의 五行

활을 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본다면 오행의 木에 해당하지만 木안에서도 오행이 모두 담겨져 있다. 궁술에서 기본자세중 몸의 上下에 관하여서는 非丁非八, 胸虛腹實이라 하고, 前後에 관하여서는 前推泰山, 發如虎尾라 한다.

오행으로 본다면 비정비팔과 흉허가 水에 관한 것이다. 이는 『素問』 「四氣調神大論」에서 겨울을 閉藏이라고 하였던 것과 일치한다. 비정비팔이란 과녁을 향하여 설 때 한쪽 발은 과녁을 향하고 다른 발은 어깨넓이만큼 벌리고 뒤로 발길이의 반정도 물러서서 45도 각도로 벌려선다. 흉허복실이란 횡경막을 기준으로 아래는 힘을 주고 위는 힘을 주지않는 것이다. 복실을 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어 땅을 잡듯이 딛고서는 무릎은 뒤로 밀고 엉덩이는 약간 앞으로 내밀면 다리는 팽팽해지며 엉덩이와 항문은 저절로 오무러지고 아랫배가 들어가면서 중심이 잡히게 된다. 엉덩이가 뒤로 빠지고 항문이 벌어져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오행도표에서 水가 가장 아래에 있고, 오장을 높낮이로 볼 때에도 腎이 가장 아래이

18) 新矢舊弓이란 말이 있다. 활은 묵은 것을, 화살은 새것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방금 만든 활은 탄력이 없이 뻔뻔하다. 이는 오장의 맥상으로 비유한다면 진간맥에 해당하는데, 『素問』 「平人氣象論」에서는 “死肝脈來, 急而益勁, 如新張弦, 曰肝死.”라 하였다.

다. 오행의 원리로 볼 때 腎을 보하기 위하여 약을 쓴다면 육미지황탕처럼 무거운 약을 쓰야 하며, 걸음을 걸을 때는 무게중심을 낮추고 힘있게 땅을 밟아야 한다. 이것은 腎水가 가장 낮게 위치하는 것과 원리가 같다. 『靈樞』 『經脈』 편에서는 족소음신경을 뜸 뜸 때 5가지를 병행하도록 주문하였다. 첫째는 날고기를 먹고, 둘째는 허리띠를 느슨하게 매고, 세째는 머리카락을 풀어헤치고, 네째로서는 큰 지팡이를 짚고, 마지막으로서 땅을 힘있게 밟은 상태에서 걸어라고 되어있다.¹⁹⁾ 이 다섯가지는 모두 腎의 陰을 보하는 것이다. 아랫배 단전은 인체의 무게 중심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무게 중심이 높아지면 자세가 불안해진다. 궁술에서는 비정비팔과 복실을 사용하여 단전에 힘을 모으는데 이 자세를 제대로 서면 일부러 단전에 힘을 주려 하지 아니하여도 힘이 저절로 모이게 된다.

그리고 水기운이 내려가는 것이지만 수승화강이라 하여 무한정 내려가서는 아니되고 결국은 올라 가야 한다. 『經脈』 편에서 주문하고 있는 것은 腎의 陽을 보하기 위하여 뜸을 뜨더라도 腎의 陰을 함께 보하는 것을 잊지말라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신수를 끌어올릴 때에도 신수는 내려가는 것이 원래의 기운임을 잊지 않고 있다. 이는 마치 『金匱要略』에 나오는 “腎氣丸” 일명 “八味丸”에서 肉桂, 附子로 腎의 陽을 보할 때에도 반드시 乾地黃, 山茱萸, 山藥, 牡丹皮, 澤瀉, 茯苓 등 腎의 陰을 보하는 六味를 함께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뿐만 아니라 熊이 동굴속에서 햇빛을 피하여 腎의 陰을 기르면서 썩과 마늘을 먹은 것과도 같은 이치인데, 썩과 마늘은 肉桂와 附子와 같은 효과를 낸다. 겨울은 추워야 하지만 무한정으로 추워져서 씨앗마저 얼어죽어서는 아니된다. 궁술에서는 엉덩이를 앞으로 밀면서 약간 위로 끌어 올리게 한다. 이러면 항문이 조여질 뿐아니라 위로 끌려 올라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팔미환의 육계, 부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²⁰⁾

흉허: 화는 올라가지만 무한정 올라가서는 아니되고 내려와야한다. 頭寒足熱이나 頭無冷痛, 腹無熱痛은 모두 이를 의미한다. 궁술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흉허이다. 허는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은 아니다. 활을 들었을 때 허라 함은 중력과 비기는 힘으로 들고 있는 것이어서 손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다. 줌을 잡는 손도 힘을 주어 잡는 것이 아니라 달걀잡듯이 살그머니 잡아야 한다. 그리고 가슴과 어깨와 목에도 힘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얼굴표정도 편안 하여야 한다. 횡경막아래는 숨을 내쉬고 배를 뒤로 당기지만 위는 숨을 들이 마시고 가슴을 부풀린다. 아래는 일직선으로 버티고 횡격막위는 물둥이를 이듯듯이 아니면 화로를 껴안듯이 오목하게 움크려야 한다.

『내경』이나 『상한론』에서는 心이나 心下가 심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화기를 의미할 때

19) “灸則強食生肉、緩帶、披髮、大杖、重履而步。”

20) 활을 왼손으로 잡고 활줄이 왼쪽 허벅다리에 걸리게 하고 엄지손가락 쪽이 몸앞에서 아래로 향하게 하고 새끼손가락 쪽이 몸 뒤 위쪽을 향하게 한다. 오른손으로는 궁대와 화살을 작고 똑바로 정면을 바라 본다. 이것이 우리의 웃고름이 왼쪽에 있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활을 당기면 활줄이 가슴에 닿고 발사를 하면 활줄이 오른쪽가슴을 스치게 되는데 웃고름이 오른쪽에 있으면 아니된다. 따라서 고름을 왼쪽에 두어야 한다.

가 있다. 사심탕증에서 심하비증이 대표적인데 궁술에서도 심하부를 기준으로 힘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 아래는 신수에 속하고 위로는 심화에 속한다. 왼쪽은 목에 속하고 오른쪽은 폐금에 속한다. 따라서 오목가슴부위를 오행에서 토처럼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 앞으로 내밀어서는 아니 되고 힘을 빼야 한다.

흉허복실이 되면 용천과 회음, 그리고 백회가 연직선상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힘은 용천에서 회음을 통하여 임맥과 독맥을 거쳐 백회까지 연결되게 된다.

의식으로 본다면 단전에다 의식을 두고 가슴에는 의식을 비워라는 말이기도 하다. 더구나 과녁에다 의식을 두면 아니된다.²¹⁾

전추태산: 木이 왼쪽에 자리 잡았어도 무한히 왼쪽으로 나아가지는 아니한다. 궁술에서는 前推泰山이라 하여 인간이 태산을 밀어도 태산은 밀리지 아니하듯이 팔을 어느 범위까지만 밀어 어깨가 앞으로 빠지지 아니하게 하고, 뒤로 팔려들어오지 않게 버티고 있어야 한다. 활을 당기는 도중에도 왼팔이 앞으로 나아가면 아니된다. 그리고 팔힘만으로 미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밀어야 한다. 용천에서 다리로 허리를 거쳐 왼쪽 팔 전체로 밀기 위하여서는 팔꿈치가 엮어져서 손목과 팔꿈치와 어깨가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그리고 엄지의 어복도 과녁을 향하여 민다. 3,4,5 지로는 활을 단단히 잡아 기운이 뒤로 들어오게 한다. 이것이 木을 음증지양이라 한 것과 일치한다. 활을 발사하고 나서야 어깨가 벌어지면서 줌손이 전진하게 된다.

발여호미: 발사를 하고 나면 오른팔이 범꼬리처럼 펼쳐져서 손바닥은 하늘을 향하게 되고 기운은 손가락까지 오게 된다. 발사를 하기전에는 팔꿈치를 어깨보다 살짝 낮추고 견갑골의 근육들이 최대한 긴장하여 더 이상 당길 수가 없을 때 까지 당겨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정면에서 보았을 때 팔꿈치가 등뼈쪽으로 돌아가 있어 몸에 가려 보이지 아니하여야 한다.

궁술을 시간적으로 나누어 오행으로 살핀다면 다음과 같다.

기본 자세는 활을 왼손으로 잡고 활줄이 왼쪽 허벅다리에 걸리게 하고 엄지손가락 쪽이 몸앞에서 아래로 향하게 하고 새끼손가락쪽이 몸 뒤 위쪽을 향하게 한다. 오른손으로는 궁대와 화살을 잡고 똑바로 정면을 바라 본다.

여름: 활을 드는 것은 여름기운이다. 아래 고자가 배꼽아래에 닿게 하고서는 똑바로 들어 왼손이 최소한 이마높이가 되도록 한다. 여름에는 모든 것이 밖으로 드러나있고, 활은 줌통과 현이 가까이 있고 오무라져 있듯이, 궁사도 숨을 내쉬고 옆구리와 가슴이 무방비 상태가 되게 한다. 그리고 의식도 주위의 지형이 어떤지 바람은 어디에서 어디로 부는지를 살핀다.

장하: 활을 들어올린 뒤부터 당기기 직전까지 자세를 고정시키는 것은 장하이다. 이때에는 높이

21) 『老子』에 “虛其心,實其腹”이라 한 것과도 일치한다.

든 팔을 약간 내리고 왼쪽 어깨도 낮추며 줌손을 세우고 숨을 멈춘다. 두 어깨와 팔은 힘을 주면 아니된다. 아직도 활은 수축력이 없기 때문이다.

가을: 활을 당기는 과정으로서 숨을 들이마시면서 당겨야 하며 힘을 주면 아니된다. 활이 수축하려는 힘이 처음에는 거의 없고 당길수록 점점 생겨나기 때문이다. 가을은 「四氣調神大論」에서 容平이라 하였다. 용평이란 받아들이고 평평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때의 맥을 부맥이라 하여 여름의 洪脈이 안으로 모아지는 상이다.

겨울: 활을 당긴 상태에서 더욱 더 밀고 당겨 힘을 화살에 모으는 과정이 겨울에 해당한다. 오른쪽 팔꿈치를 높이는 유지한 채로 견갑골 주위의 근육들이 긴장하여 더 이상 당겨지지 아니하도록 계속 당긴다.

臂을 作强之官이라 한다. 作을 『老子』에서 “아기는 이성을 모르면서도 생식기가 오뚝 일어난다”고 하였고, 『論語』에서 “25현금을 밀어내 놓고 일어섰다”(舍琴而作)고 하였듯이, 作强은 생식기가 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활을 최대한 당기는 것을 만작이라 하는 것과 같다. 맥상으로는 石脈에 해당한다. 「四氣調神大論」에서는 겨울에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若私有意, 若己有得, 若伏匿,” 이라 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과녁이나 주위환경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아니된다. 오로지 자신에게만 마음을 두어야 한다. 활을 당기고 있다가 발사하기가 아까워 계속 힘차게 잡고서 당기고 있는 것이다. 몸이 움직이지 아니하여야 하는데 다리에 힘을 주어야지 한다. 두려우면 몸이 떨리는데 특히 다리가 떨리는 것은 신이 작강지관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얼굴도 쩡그러서도 아니된다. 화살이 뺨에 붙어 있는데 인상을 쓰면 그 부분은 두터워져서 조준점이 달라지게 된다. 뿐만아니라 실전에서는 상대도 나를 향하여 활을 쏘려 하므로 움직이면 발사하는 시기를 들키게 된다. 그리고 숨은 들이마셔야 한다. 오행에서 水가 靜하다는 것은 움직임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고 안에서는 움직이지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아니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호흡도 멈추고 있는듯 하지만 실제로는 끊임없이 들이 마시고 있다.

『素問』 「寶命全形論」에서는 침을 놓을 때를 활쏘는 것에 비유하여 “伏如橫弩, 起如發機”라 하였다. 伏如橫弩를 글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弩를 옆에 놓아두고 옆드려 있다가 기회가 오면 그때에서야 弩를 잡고 쏜다는 것이 된다. 하지만 활을 쏘는 이치로 본다면 현실에 맞지아니하다. 화살을 발사하기 이전에는 마치 겨울에 만물이 긴장한 것처럼 활을 당기고서 꼼짝않고 목표를 조준하고 있어야 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만히 있는 것같지만 실제로는 활은 오그라 들려고 하고 사람은 힘차게 당기고 있다. 이처럼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비로소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쏠 수가 있다. 더구나 이것은 침을 놓는 것을 비유한 것인데 伏如橫弩라하면 침을 옆에다 놓아두고 태평스레 있다가 邪氣가 이르면 그때에서야 비로소 침을 들고 찌러라는 것이 된다. 이라고서도 기회를 제대로 잡을 수가 있을까? 이러하므로 橫은 彊을 빌린 글자라 보아야 한다. 미리 화살을 끼우고 활줄을 당겨 꼼짝않고 기회를 노리고 있어야 하듯이, 침도 미리 단단히 잡고

서 사기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재빨리 낚아채라는 의미이다.²²⁾

그리고 「四氣調神大論」에서는 겨울에 양생을 잘못하면 봄에 생기가 줄고 간이 상한다고 하였다. 뒤집어 본다면 봄에 생기를 왕성하게 하려면 겨울에 겨울기운을 잘 기르면 된다.²³⁾ 마찰가지로 활을 쏘는 것은 목의 기운을 기르는 것이므로 몸을 긴장시키고 활줄을 팽팽히 당겨 겨울과 같은 기운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활을 쏘면 쓴 살같이 빠르고, 활줄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나 활에 떨어지는 소리는 아무렇게나 쏜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 이 소리만 듣고서도 활쏘는 실력을 알 수가 있다. 힘의 법칙에서 힘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고 질량에 정비례하듯이 속도가 빠르면 그만큼 힘차게 된다.

그리고 겨울이 음중의 음이지만 순음은 아니다. 여기에도 양은 있다. 「四氣調神大論」에서 겨울에 음기를 기르면서도 찬 기운을 멀리하고 따뜻한 기운을 취하라는 한 마디를 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왕빙본 『素問』 「上古天真論」에 의하면 “腎者主水, 受五臟六腑之精而藏之, 故五臟盛乃能瀉.”라 하였는데 『太素』에서는 能자가 없다. 『太素』를 따르면 腎이 비록 정을 간직하지만 한계가 있어 자신이 간직할 수 있는 한계가 넘으면 밖으로 내보낸다. 단군사회에서 환웅이 熊과 虎에게 굴속에 있으면서 햇빛을 피하라 하면서도 마늘과 쑥을 먹어라 한 것과는 이치가 같다. 자신의 한계이상으로 간직하게 되면 신실증이 된다. 신실증은 허증과 마찰가지로 병이다. 궁술에서도 무한정 활을 당기기만 하고서 발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마찰가지로 각지손을 뒤로 당겨 만작이 된 상태는 겨울과정이지만 무한정으로 당겨서는 아니된다. 만작이 된 상태에서 더 당길려면 팔꿈치가 내려와야 하므로 팔꿈치의 높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줌손과 각지손의 견갑골, 다시말하면 왼쪽과 오른쪽의 견갑골이 서로 다가가고 근육이 긴장하여 더 이상 긴장이 될 수 없는 정도가 한계이다. 이렇게 되자면 줌손이나 각지손이 모두 어깨위를 올라타야 한다.

『列子』에서도 다음과 같이 비술과 기창의 고사를 들어 궁술을 익히는 첫단계가 눈을 감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였다.

감승은 활을 잘 쏘는 옛사람이었는데 활을 당기기만 하여도 짐승은 엎드리고 새는 내려왔다. 비술이란 제자가 활쏘는 법을 감승에게 배웠는데 솜씨가 스승보다 뛰어났다. 기창이란 자가 비술에게 활쏘기를 배웠다. 비술이 “먼저 네가 눈을 감지 아니하는 것을 배운 다음에야 내가 활쏘는 법을 말해줄 수 있다.”고 하였다. 기창은 돌아가서 아내가 짜는 베틀아래에 누워 베틀아래 나무가 움직이는 데로 시선을 따라갔다. 2년 뒤에 비록 송곳끝이 눈꺼풀에 닿을 정도가 되었어도 눈을 감지않게 되었다.²⁴⁾

22) 伏如橫弩, 起如發機는 김인라의 「肝者 罷極之本에 對한 五行論的 解釋」. 『대한원전의학회지』, 1994에 자세히 논의가 되었다.

22) 冬不按蹻, 春不病溫.

24) 列子: 제5湯問篇 寓話

이때는 호시탐탐이라 하여 범이 사냥감을 사정거리안에 두고서 입맛을 다시면서 기회를 노리는 상태이다. 이미 사냥감은 잡힌 것이나 다름없듯이 자신만만하게 과녁을 노려보아야 하고, 반드시 맞으리란 확신이 서야한다. 마치 낚시바늘에 물린 물고기가 도망가려고 할 때 낚시꾼은 자신감에 차서 낚시대를 당겨 팽팽히 맞서있는 상태이다. 그때의 감이 바로 이러한 맛과 같다.

봄: 발사하는 순간은 木에 해당한다. 계속 밀고 당기면서 숨을 들이마시면서 가슴을 벌리면서 발사를 해야 한다. 과녁을 향하여 쏘지만 전쟁터에서는 상대도 활을 들고서 나를 향하여 활을 쏘려고 한다. 이때 발사하려는 순간을 적에게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발사하는 순간은 남의 눈에 띄지 않아야 할 뿐아니라, 자기자신도 모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봄의 맥을 현맥이라고 하는데 이때에 말하는 현맥은 순수한 현맥이 아니라 순수 현맥에 비의 완맥이 더한 것이다. 순수 현맥은 딱딱하지만 정상적인 현맥은 부드럽다.

『素問』 「靈蘭秘傳論」에서 간은 장군과 같은 기관이고 모려가 여기에서 나온다고 하였다. 장군이 작전을 수행할 때는 적에게 눈치채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그리고 담은 중정지관이며 결단이 나온다고 하였다. 끊임없이 밀고 당기는 가운데 결단을 하여 활을 발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결단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각지를 빼는데 지나치게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아니된다. 대담성이나 결단력이 부족한 자들은 활을 당기고만 있다가 발사할 기회를 놓치든가 아무렇게나 발사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素問』 「寶命全形論」에서는 起如發機라고 하였다. 침을 놓는 것은 득기할 때를 기다렸다가 득기를 하면 이를 놓치지 아니하고 침을 찌르는데 마치 弩를 발사하는 것처럼 한다는 의미이다. 물론 이때 살기를 띄기 보다는 생기를 띄는 것이 중요하다.

『素問』 「六節藏象論」에서는 간을 罷極之本이라고 하였는데 罷와 極은 의미가 같고 생리적이어서 파는 罷와 같고 비는 큰곰이다. 간을 큰곰에다 비유한 것은 무엇때문이고 또 큰 곰과 같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느리고 미련한 자를 곰같다고 하지만 罷極之本은 이러한 의미는 아닐 것이다. 곰이 몸을 세우고 앞발을 치켜들여 눈깜짝할 사이에 내리쳐서 연어를 낚아채는 장면을 연상한다면 의미가 뚜렷해진다. 華陀가 만든 五禽戲에서 熊勁鷓鴣의 응경도 단순히 곰처럼 선다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똑바로 서는 것은 직립동물인 인간을 따라올 것이 없다. 그런데도 곰처럼 선다는 것은 퇴보를 의미한다. 올빼미가 뒤돌아보듯이 하라는 것은 올빼미는 목이 180도 돌아가지만, 사람은 이렇게할 수가 없으므로 올빼미를 따라하여 한 수 배우는 것이다. 마찮가지로 熊類도 사람보다는 나은 동작이어야 한다. 그러면 熊類은 곰의 어떤 동작을 의미할까? 여기에 합당한 것은 아마도 곰이 앞발을 들었다. 힘차게 내려쳐서 먹이를 낚아채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장면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오는 연어를 잡으려 할 때를 생각하면 쉽게 수궁이 간다. 이것이 바로

甘繩古之善射者，發弓而獸伏鳥下。弟子名飛術，學射於甘繩，而巧過其師。紀昌者又學射於飛術。飛術曰：「爾先學不瞬，而後可言射矣。」紀昌歸，偃臥其妻之機下，以目承牽挺。二年之後，雖雉末倒皆而不瞬也。

활을 단단히 당기고 있다가 기회가 오면 쥘싸게 화살을 날려보내는 것과 같다. 따라서 熊類은 곰이 앞발을 들고서 내리칠려는 듯이 힘차게 서라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²⁵⁾ 다른 비유를 든다면 100 미터달리기 선수가 출발선에서 몸을 움추리고 있다가 출발신호와 동시에 쥘싸게 뛰쳐나가는 것과 같다고 본다. 이렇게 보아야지 간의 기능과 봄의 기운이 들어맞게 된다.

그리고 발사를 하고나서 바로 몸이 풀어지면 아니된다. 오행으로 본다면 목 화 토 금 수는 순순하지 아니하여 목은 목이 위주이면서 화토금수를 포함하고 있다. 목도 순수 목이 아니어서 처음에는 수의 기운이 여전히 남아있다. 계절로 본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경계가 뚜렷하지않고 연속적이다. 봄의 첫날과 끝날은 비록 모두 봄이지만 날씨차이는 겨울 끝날과 봄 첫날의 날씨차이보다도 크고, 봄 끝날과 여름 첫날의 차이보다도 심하다. 봄을 따뜻하다고 하고 여름을 덥다고 하지만 봄 첫날은 겨울에 가깝고 봄 끝날은 여름에 가깝다. 겨울 끝날까지 춥다가 갑자기 봄 첫날에 따뜻해지는 것도 아니고 여름 첫날에 갑자기 더워지는 것도 아니다. 계절의 날씨변화는 언제나 점진적이다.

이를 표현한 것이 『素問』 「至眞要大論」의 “春不沈, 夏不弦, 冬不澁, 秋不數, 是謂四塞”이라는 구절이다. 봄의 날씨는 따뜻하다는 말로 대표되지만 실제내용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변화하여 초봄에는 아직도 겨울같이 차다. 맥상도 봄 3개월이 시작되자마자 겨울의 沈맥은 완전히 사라지고 봄의 弦맥만 남는 것이 아니라 沈맥은 남아있으면서 弦맥이 드러나게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沈맥은 점점 줄어들고 弦맥은 점점 뚜렷해진다. 마찬가지로 여름이 되면 弦맥은 서서히 사라지고 數맥은 점점 더 드러나게 된다.

만일 봄이 되자마자 겨울의 沈맥은 완전히 사라지고 弦맥만 남고 여름이 되자마자 봄의 弦맥은 완전히 사라지고 여름의 數맥만 드러나고 가을 겨울에도 그러하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기운이 막힌 것이므로 四塞이라고 한다.²⁶⁾

결국 애초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따로 있고 인간이 이를 이어붙여서 1년이 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1년을 인간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어 본 것이다. 오행도 마찬가지로 애초에 목화토금수가 따로 있는 것을 인간이 이어붙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것을 인간이 목화토금수로 나누어서 관찰하고 표현한 것이다.

이러므로 오행을 영역할 때 흔히들 5 element라고 하지만 element란 목화토금수가 각각 독립된 것이어서 목에는 화토금수가 전혀 없이 순수목으로 존재하고 화토금수도 그러할 때에야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다. 오행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싶이 목은 목만으로 존재하지않고 목속에 화토금수가 모두 들어있으면서도 목이 위주가 되는 것이다. 화토금수도 그러하다. 그러므로 원소론은 실체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지만 오행론은 변화하는 것을 다섯으로 무리지어 관찰하고 표현하는 것이다.²⁷⁾

25) 김인라. 「肝者 罷極之本에 對한 五行論的 解釋」. 『대한원전의학회지』, 1994.

26) 白楊: 如何理解“春不沈, 夏不弦, 冬不澁, 秋不數, 是謂四塞”(『雲南中醫雜誌』, 1985, 封3.)

27) 수학자 김용운은 『한국수학사』(서울: 열화당, 1982: 24-25.)에서 실제론과 생성론이란 용어으로써 이를 설명하였다.

발사하는 순간 또는 발사를 하고 나서도 몸은 움직이지 아니하여야 한다. 줌손이 내려온다거나 몸이 흔들린다거나 인상을 쩡거리거나 숨이 가쁘거나 하여서는 아니된다. 만약 발사하는 순간에 힘을 더 준다면 몸이 흔들리게 되고 마음도 움직이게 된다. 뿐만 아니라 발사하려는 순간을 남이 눈치채게 한 것이니 실패작이다. 요행히 화살이 과녁에 맞더라도 잘못 쏜 것이다. 오행으로는 목태과이고 오장으로는 간태과이다. 감정으로 본다면 화를 내는 것이고 분통이 터지는 것과 같다. 『三國史記』 「金庾信」조에 의하면 소정방과 약속한 장소에 김유신장군이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소정방이 김유신의 부하를 군법에 의하여 처형하려 하였다. 이때 김유신 장군이 화를 내면서 도끼를 잡자 머리카락이 치솟았고, 허리에 찬 칼이 칼집에서 튀어올랐다고 되어있다. 이것이 간기능은 지나치게 왕성한 상태를 잘 보여준다. 반대로 발사하는 순간에 밀고 당기던 힘을 빼버리면 간불급이다. 이렇게 되면 당기고 있던 손이 활의 수축력을 견디지 못하고 발사하는 순간에 조금 떨려나가게 되는데 이를 퇴축이라 한다. 그리고 결단력이 부족한 자는 당기고만 있다가 끝내 발사를 하지 못한다. 발사를 하고나면 발여호미라 하여 활을 당기는 팔이 관성의 법칙에 의하여 계속 뒤로 펼쳐져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되어, 마치 범의 꼬리처럼 되어야 한다. 힘이 팔꿈치에서 손가락끝까지 전달되는 것이다. 열자는 이 단계를 정확히 보는 것이라 하였다.

기창이 비술에게 이를 말하니 비술은 “아직 아니다. 네가 보는 것을 배운 뒤에라야 내가 활쏘는 법을 말해줄 수가 있다. 작은 것을 보더라도 크게 보이고, 잘 아니보이는 것을 보더라도 잘보이게 된 뒤에 나에게 말하라.” 기창은 말총으로 이 한마리를 묶어 봉창에다 매달아놓고 남쪽을 향하여서 이를 바라보았다. 10일동안에 점점 커지고, 3년 뒤에는 차바퀴만큼 되었다. 이 실력으로 다른 것을 보니 모두 언덕이나 산만큼 되었다. 이리하여 연나라 물소뿔로 만든 활로, 초나라에서 나는 대나무로 만든 화살을 쏘니 이의 심장을 꿰뚫었는데도 말총은 끊어지지 아니하였다. (이가 여전히 말총에 매달여 있고 말총은 끊어지지 아니하였다) 비술에게 이를 알리니 비술은 필쩍 뛰고 가슴을 치면서 말하기를 “너는 활쏘는 법을 터득했다” 고 하였다.²⁸⁾

이렇게 활을 쏘면 활줄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나 활에 떨어지는 소리가 모두 목음으로서 생기를 불러 일으키고 기분을 상쾌하게 한다.

발사를 한 뒤에는 처음과 마찬가지로 활을 왼손으로 잡고 활줄이 왼쪽 허벅다리에 걸리게 하고 엄지손가락 쪽이 몸앞에서 아래로 향하게 하고 새끼손가락 쪽이 몸 뒤 위쪽을 향하게 한다. 오른손으로는 궁대와 화살을 잡고 똑바로 정면을 바라 본다.

2-3. 心身論

28) 以告飛術. 飛術曰, “未也. 亞學視而後可. 視小如大, 視微如著, 而後告我.” 昌以鼈懸虱於牖, 南面而望之. 旬日之間, 浸大也, 三年之後, 如車輪焉. 以觀餘物, 皆丘山也. 乃以燕角之弧, 朔蓬之幹射之, 貫虱之心, 而懸不絕. 以告飛術. 飛術高蹈拊膺曰, “汝得之矣.”

고조선의 사회를 유지하는 힘 3가지중에서 종교가 가장 큰 힘이었고, 단군도 하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여겼다. 환웅이 지상에 내려올 때 風伯、雨師、雲師와 더불어 곡식과 생명, 그리고 질병 등 인간사를 관장하였고, 熊에게 동굴에서 햇빛을 피하고서 쑥과 마늘을 먹도록 한 것은 정치와 제사를 함께 관장하고 또 의학도 관장하였음을 보여준다. 정치와 의학이 구분되는 것은 요사이나 가능한 것이고 고대로 올라갈 수록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의학과 종교, 정치 등이 섞여 있었다.²⁹⁾

壇君이란 칭호는 몽고어에서 하늘을 뜻하는 텡그리와 뜻을 같이한다. 따라서 壇君은 하나님 또는 천군으로서 종교의 최고지도자에 대한 칭호이다. 중국에서 최고통치자를 하늘님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天子라 한 것과 같다. 중국발음으로 天君은 티엔쥘, 단군은 단쥘으로서 발음이 비슷하다. 고조선의 壇君은 우리의 음을 한자로 적은 것일 것이다. 『三國遺事』에서는 단군이 壇君으로 되어있고 『帝王韻紀』에서는 檀君으로 되어있는 것을 보더라도 漢字자체의 의미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後漢書』 「東夷列傳」 「韓傳」에서는 天君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여러 국읍에는 각각 한사람으로써 天神에 대한 제기를 주재하도록 하였는데, 이름하여 天君이라고 하였다.”³⁰⁾

『三國志』 「魏書」 「烏丸鮮卑東夷傳」에서는 “귀신을 믿기 때문에 국읍들에서는 각각 한 사람을 세워 하늘님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는데, 그를 천군이라고 한다.”³¹⁾고 하였는데 이 기록은 고조선이 붕괴된 뒤의 韓의 상황을 전하는 것이지만 한나라는 고조선의 거수국이었으므로 종교지도자 명칭이 그대로 계승되었을 것으로 본다.

같은 책 「韓傳」에서는 “또 여러 거수국에서는 각각 별읍이 있는데, 그것을 蘇塗라고 한다. 그곳에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아 놓고 귀신을 섬긴다. 누구든 도망하여 그 안에 이르면 아무도 돌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반항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다. 그들이 蘇塗를 세운 뜻은 부도와 같으나 행하는 바의 좋고 나쁜 점은 다르다.”³²⁾고 하였다. 韓에는 종교지도자로서 天君이 있고 소도라는 종교적 별읍이 있었는데, 이것은 고조선의 중앙에 도읍과 구별되는 종교성지로서 신시가 있었던 것처럼, 거수국의 정치중심지엔 국읍이 있었고 지방에는 일반읍과 구분되는 蘇塗란 장소가 있었다. 이곳에 범죄자가 도망하면 그를 돌려보내지 않았다고 한 것을 보면 종교적 권위가 정치의 권위보다도 강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29) 정치가가 의학을 겸하는 것은 『黃帝內經』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 『素問』 「上古天真論」에 “성인이 몸소 건강생활을 실천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모범이 되었다(上古聖人之教也, 下皆爲之)”는 것이나, 「四氣調神大論」에 “성인은 이미 병이 난 것은 치료하지 않고, 병나지 아니한 것을 치료한다(聖人不治已病, 治未病).”라고 한 것이 증거가 된다.

30) “諸國邑各以一人主祭天神, 號爲天君.”(『後漢書』 卷85 「東夷列傳」 「韓傳」)

31) “信鬼神, 國邑各立一人主祭天神, 名爲天君.”(『三國志』 卷30 「魏書」 「烏丸鮮卑東夷傳」)

32) “又諸國各有別邑, 名之爲蘇塗, 立大木, 縣鈴鼓, 事鬼神. 諸亡逃至其中, 皆不還之, 好作賊. 其立蘇塗之義有似浮屠, 而所行善惡有異.”(『三國志』 卷30 「五丸鮮卑東夷傳」 「韓傳」)

이상에서 보듯이 고조선은 종교적 성지로서 중앙에 神市가 있었고 각 거수국에는 蘇塗가 있었다. 단군은 정치적으로는 거수들을 지배하면서 종교적으로는 신시에 있는 종교직인과 각 거수국의 종교지도자인 천군을 거느렸다. 각 거수들은 자신들의 봉지 일부를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는데 나누어 받은 자를 博士라 하였다. 이때에 종교도 나누어 주었다. 이러한 종교의 재분배는 전국민으로 하여금 동일한 최고신을 섬기는 종교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공동체의식을 갖게하여 신정조직의 기능을 하였다.³³⁾

종교의 힘이 강한 것은 의학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지배적이었다. 醫의 옛글자는 醫로서 医는 矢를 감춘 匣을 의미하고, 冫도 병기의 일종이며, 巫는 무당을 의미한다. 후대에 巫가 酉로 변하여 술이나 추출액을 의미하게 되었다. 특히 고조선에서는 청동제 검이나 거울, 방울, 그리고 장신구들이 많이 출토되었다. 이것은 중국에서 청동제 그릇과 잔이 많이 출토되는 것과는 비교가 된다. 고조선에서는 장신구들로서 장식을 하고서는 춤추고 노래하여 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 반면 중국에서는 음식과 술으로써 神을 대접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³⁴⁾ 이렇게 흥을 돋구는 것은 굿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神이란 글자는 示와 伸으로 이루어졌다. 계절로 본다면 여름과 같다.

우리말에 신바람난다거나 신명난다는 말이 있는데, 五臟에서 心臟을 君主와 같은 장기라고 하고 神明이 거기에서 나온다고 보는데 心臟이 계절로는 여름에 해당하는 장기이므로, 신명난 상태가 심이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 때이다. 따라서 무당이 춤을 추고 노래를 하거나 하늘로 쟁쟁쟁쟁 뛰거나 술마시고 음식을 먹어 神明이 나고 신바람이 나아지 몸과 마음이 神의 상태가 될 수 있다. 형식은 몸과 분리되어 몸밖에 있는 神을 무당의 몸안으로 불러 들여 신들렸다거나 신내렸다고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굿을 하는 자와 이를 구경하는 자 모두가 신바람이 나고 신명이 나서 흥이 고조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靈樞』「癡狂」에서는 미친 자가 많이 먹고 귀신을 자주 보고, 잘 웃지만 웃음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크게 웃은 일이 있었기에 병이 난 것이라고 하여 침차방을 내리고 있다.³⁵⁾ 이처럼 귀신에 의하여 병이 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실은 분명한 원인이 있다. 귀신이 존재하느냐 없느냐는 문제는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다. 만일 인간을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 존재하다가 둘이 결합함으로써 된 것으로 본다면 몸과는 전혀 별개인 귀신은 존재하게 된다. 그렇지 아니하고 인간을 몸과 마음이란 두 방면으로 관찰하고 표현한 것이라고 본다면 몸과 마음은 따로 이 있을 수가 없다. 몸을 제외하고서 마음만 존재할 수도 없고 마음을 제외하고서 몸만 존재할 수도 없다. 몸이라고 할 때는 이미 마음이 포함되어 있고 마음이라고 할 때에는 몸이 포함되어 있다. 뒤의 것이 한의학에서 통용되는 사고방식이다. 우리말에 사촌이 눈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고, 깜짝놀랐을 때 간 떨어지겠다느니, 간이 콩알만해졌다, 간이 철렁했다고 한다. 그리고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때는 비위에 거슬린다고 한다. 『素問』「靈蘭秘典論」에서는 五臟六腑를

33) 윤내현. 위의 책, 536.

34) 윤내현. 위의 책, 17.

35) “狂者多食, 善見鬼神, 善笑而不發於外者, 得之有所大喜, 治之取足太陰. 太陽. 陽明, 後取手太陰. 太陽. 陽明.”

政府組織에 비유하고서는 肝에서 謀慮가 나온다고 하고, 心에서 神明이, 肺에서 治節이, 腎에서는 技巧이 나온다고 하였다. 이것은 五臟이 精神作用과 관련이 있음을 드러낸다. 따라서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다. 반대로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든다. 몸과 마음의 관계는 陰陽論과 같다. 陰과 陽은 세상의 모든 것을 陰과 陽이라는 두 측면으로 관찰하고 표현하려는 것이므로 陰이라고 한 것에는 이미 陽이 포함되어 있고, 陽이라고 한 것에는 이미 陰이 포함되어 있다. 관찰대상이 결정되고 나면 이것을 陰과 陽 두 방면으로 관찰하고 표현하여야지 陰 하나로만 관찰하고 표현하거나, 陽 하나로만 관찰하고 표현하여서는 약속체계에 어긋난다. 陰과 陽, 兩面으로 관찰한 것 중에서 陽이라고 한 부분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것 역시 陰과 陽으로 관찰되고 표현되어야 한다. 純陰, 純陽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를 의미한다. 純陰, 純陽은 實在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세계일 뿐이다.

인간을 陰과 陽, 兩面으로 관찰하고 표현한 것을 구체적으로 든다면 左右, 上下, 前後, 氣血, 形氣, 心身 등 여러가지가 있다.

따라서 인간을 어떤 체계로 관찰하고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用語는 같더라도 의미범위는 달라질 수가 있다. 氣를 예로든다면 『素問』 「寶命全形論」에서는 “하늘과 땅이 기운을 합한 것을 사람이라 한다.”³⁶⁾고 하였는데 이 때에는 氣가 인간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 이 氣를 두 방면으로 나누어 天氣와 地氣로 관찰하고 표현한 것이다. 氣血관 용어로 인간을 관찰하고 표현한다면, 이 때에 氣가 의미하는 바는 인간의 절반이다. 물론 氣라고 표현한 부분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여전히 氣와 血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때의 氣는 「寶命全形論」의 天氣와 地氣 중에서 天氣와 의미범위가 같다. 또 『靈樞』 「本神」에서는 “하늘의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을 德이라 하고, 땅의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을 氣라고 한다”³⁷⁾고 하였는데, 이 때에는 인간을 德과 氣라는 두 방면으로 관찰하고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이 때의 氣는 德에 비하여서는 陰에 속한다. 따라서 氣는 「寶命全形論」의 地氣와 같고 氣血로 볼 때의 血과 같다. 德은 「寶命全形論」의 天氣와 같고 氣血의 氣와 같다. 이처럼 「本神」의 氣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氣血體系에서의 氣와 용어 자체는 같지만 의미는 완전히 반대가 된다.

인간을 精, 氣, 神이라는 체계로 관찰하고 표현한다면 氣는 인간을 3등분한 것중 하나일 뿐이다. 氣와 血 또는 氣와 德으로 본 것에 비하여서는 의미범위가 줄어든다.

똑같은 문제가 魂魄이라고 할 때도 발생한다. 魂魄의 의미범위가 정신적인 것만을 의미하기도 하고 몸과 마음 모두를 의미하기도 한다. 정신적인 것으로만 본다면 魂은 봄기운처럼 걸어서 펼쳐지는 기운이고 魄은 가을기운처럼 안으로 모이는 기운이다. 몸과 마음으로 본다면 魂은 마음을 의미하고 魄은 몸을 의미한다.

다시 처음의 주제로 되돌아가서 神이라 함은 몸을 제외한 순수한 마음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神에는 몸이 포함되어 있다. 반대로 마음이라 할 때에도 몸이 포함되어 있다. 몸과 마음의 발음이 비슷한 것도 증거가 된다. 인간이 사망한 뒤 육체가 부패하듯이 마음도 마찬가지로

36) “天地合氣, 命之曰人.”

37) “天之在我者, 德也. 地之在我者, 氣也.”

『靈樞』, 『賊風』에서는 사기를 만나지도 아니하였고 두려워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병이 든 것은 귀신때문이라는 黃帝의 질문에 岐伯은 “이도 역시 까닭이 있으니 邪氣가 인체에 잠복해 있어서 겉으로 증상이 드러나지않고 있을 때 마음에 싫어하는 바가 있게 되든가 사모하는 바가 있게 되면 혈기가 안에서 혼란스러워져서 사기가 서로 싸우게 된다. 병이 온 근원은 잡아도 잡히지 않고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으니 마치 귀신이 그렇게 시킨 것처럼 보인다.”³⁸⁾고 하여 鬼神의 존재를 부정하였다.

그리고 瘧의 효과는 귀신이 존재하느냐 없느냐는데 있지 않다. 瘧을 했을 때 병이 낫는다고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린 문제이다. 현대의 용어로서는 偽藥效果라는 것이 이와 통한다고 본다.

고조선에서는 모든 것이 신의 뜻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믿었으니까 신의 뜻을 알고 신에게 비는 瘧은 효과가 확실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에서는 瘧을 미신으로 볼 것이 아니라 精神神經科的인 치료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물론 오늘날에 와서도 瘧을 하자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다.³⁹⁾

2-4. 仙敎

醫學에는 3분야가 있다. 첫째는 治療이고 둘째는 豫防이며 셋째는 養生이다. 치료가 질병상태에서 건강상태로 되돌리는 것이고, 예방이 질병을 막고 건강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면, 양생은 건강한 상태를 즐기며 보다 더 건강한 상태로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음식을 먹고서 배탈이 나면 이를 치료하여야 하고, 미리 배탈이 나지않게도 주의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 때문에 먹는 것이 아무런 즐거움이 없어도, 배탈나지 않은 것만을 다행으로 여겨야 하고, 의료인은 이로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아야 할까? 그렇지 않다. 藥食同源이라하여 약물과 음식물을 근원이 같은 것으로 보듯이,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즐겁고 맛있게 먹느냐를 연구하여야 한다. 자동차로 비유한다면 사고가 난 뒤에는 이를 처리해야 하고, 미리 사고가 나지않게 안전운행도 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 때문에 운전이 괴로운 것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운전하는 것이 즐거운 것이 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의학에 있어서도, 질병은 치료를 하고 예방은 하여야 하지만, 이런 것에 인생을 모두 소비할 수는 없다. 의학의 최고목표는 질병이 아닌 상태를 넘겨 건강할 때 삶의 질을 높이고, 보람있게 하는 養生에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약을 즐기는 것도 부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양생이란 측면에서는 바람직 한 것이다.

『黃帝內經』에서도 치료와, 예방을 중시하면서도 양생에 더 역점을 두었다. 첫 篇인 「上古天真

38) “黃帝曰, 今夫子之所言者, 皆病人之所自知也. 其母所遇邪氣, 又母怵惕之所志, 卒然而病者, 其故何也? 唯有因鬼神之事乎? 岐伯曰, 此亦有故, 邪留而未發, 因而志有所惡, 及有所慕, 血氣內亂, 兩氣相搏. 其所從來者微, 視之不見, 聽而不聞, 故似鬼神.”

39) 心身論은 신순식 외8명. 『한국한의학사 재정립』. 한국한의학연구소, 1995.에서 김인락이 쓴 「상고시대의 의학」에서 자세히 논의가 되었다.

論篇』에서는 ‘상고에 의사의 가르침을 아래 사람들이 모두 이를 따랐다’고 되어 있다. 가르치는 방법은 말로써만 한 것이 아니라 의사 자신이 몸으로 실천해 보임으로써 사람들이 본받게 한 것이다. 『平人氣象論』에서는 의료인은 건강의 표본이기 때문에 환자를 진찰할 때 자신을 건강기준으로 하여 진단하였다고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호흡과 맥박은 4대 1로서 숨을 들이실 때에 맥이 2차례 뛰고 내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2차례 뛰다. 1분간으로 볼 때 18차례 숨을 쉰다면 맥은 72차례 뛰는 것이다.⁴⁰⁾

오늘날 의사들은 시계를 들여다보고서 1분간을 기준삼고 환자의 맥박이 몇번인가를 헤아리지만 『內經』에서 이상으로 삼는 의료인은 의료인 자신의 호흡을 기준으로 환자의 맥박수를 살폈던 것이다. 이 정도였으니까 의사는 환자에 대하여 몇몇할 수가 있었고 단순히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건강수준을 의사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었다.

이처럼 의사는 언제나 건강하고 삶도 건강함의 표본이 되어야 한다. 의료인은 질병과 싸우는 전사역할도 해야하지만, 건강을 되찾았을 때는 인생을 가치있고 보람되게 하는 역할도 하여야 한다.

인생을 生, 長, 壯, 老, 死 다섯단계로 볼 때 養生은 生의 의미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다섯단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둘째는 처음의 生만으로 보는 것이다. 앞의 것은 현실론이고, 뒤의 것은 이상론이다. 앞의 것은 건강하게 죽는 것을 목표로 하고, 뒤의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⁴¹⁾ 여기에서는 이상론으로서 仙敎를 살펴보자.

壇君史話에서는 “(壇君은) 뒤에 아사달로 돌아와 은거하여 山神이 되었다”⁴²⁾ 라고 하였다. 그리고 『三國史記』, 『高句麗本紀』에서는 “왕은 환도성이 난리를 치러 다시 도읍할 수가 없게 되었으므로 평양성을 쌓고 백성과 종묘사직을 거기로 옮기었다. 평양은 본래 선인 왕검의택이다.”⁴³⁾ 라고 하였다. 이는 고구려가 중국 위나라 관구검의 침략을 받고난 뒤의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서 壇君 王儉을 선인이라 하였다.

『三國史記』에 실린 崔致遠의 ‘鸞郎碑序’에는 “우리나라에는 현묘한 도가 있으니 이를 풍류라고 한다. 이 교가 세워진 기원에 대하여서는 『仙史』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⁴⁴⁾라고 하였다. 이로서 우리에게서 風流敎가 있었고 이 敎를 仙敎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史記』, 『秦始皇本紀』에는 “이미 제인, 서불 등이 글을 올리기를, 바다 가운데 삼신산이 있으니 그 이름을 봉래, 방장, 수주라고 이르며, 그곳에 선인이 산다고 말합니다. 청하웁건데 제계하고 동

40) “人一呼脈再動, 人一吸脈亦再動, 命曰平人. 平人者, 不病也. 醫不病, 故爲病人平息以論法也.”

41) 죽음과 건강에 대하여서는 金仁洛의 博士學位論文인 ‘東洋醫學의 生死論 研究’, ‘3. 死論’과 ‘4. 醫道論’, 慶熙大學校 大學院, 1989년에 자세히 논의가 되어 있다.

42) “後還隱於阿斯達爲山神.”

43) “二十一年, 春二月, 王以丸都城經亂, 不可復都, 築平壤城, 移民及廟社, 平壤者本仙人王儉之宅也, 或云, 王之都王儉.”(『三國史記』卷17「高句麗本紀」, 「東川王」, 21년)

44) “國有玄妙之道, 曰風流, 設敎之原, 備詳仙史.”(『三國史記』卷4「新羅本紀」, 「眞興王37年」條)

남, 동녀들과 더불어 그것을 구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서불을 보내어 동남, 동녀 수천명을 징발하여 바다에 들어가 선인을 구하도록 하였다.”⁴⁵⁾는 기록이 있다.

이에 대하여 『史記正義』에 주석하기를 “『漢書』, 『郊祀志』에 이르기를, 이 삼신산은 발해 가운데 있다고 전해 오는데, 그 곳에 (중국)사람이 간 것은 오래지 않았다. 아마도 예전에 그곳에 도달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여러 선인과 불사의 약이 모두 있다고 전한다.”⁴⁶⁾고 하였다.

또 『括地志』에 이르기를, “단주는 (중국)의 동해가운데 있는데, 진 시황제는 서불로 하여금 동남, 동녀를 데리고 바다에 들어가 선인을 구하도록 하였다.”⁴⁷⁾고 하였으니 진 시황제가 선인과 불사약을 구하려 서불과 어린 소년, 소녀들을 바다로 보내었는데 이 땅은 중국의 동쪽 바다가운데 있었다는 것이며, 이름은 단주 즉 단의 땅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선인이 사는 삼신산은 발해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산들은 발해가 중국동쪽 바다에 있으므로 역시 중국의 동쪽바다에 있을 것이다. 중국의 동쪽바다 가운데 있는 땅이라면 한반도이다. 더구나 단주라고 하였으니 단군이 통치하는 땅이다.

그리고 『史記』에는 秦始皇이 碣石으로 가서 연 지역의 사람 노생을 시켜 강문과 고서라는 사람을 찾아보도록 하였는데 『史記集解』와 『史記正義』에 기록된 주석에 따르면 이들은 선인이었다고 한다. 갈석은 지금의 하북성 昌黎縣에 있는 갈석산인데, 과거에는 고조선과 秦과의 국경선상에 있었다.

뿐만아니라 漢 武帝가 泰山에서 天命을 받는 제사를 지내고 난 뒤, 방사가 蓬萊 諸神산도 만나려 하신다면 만날 수가 있을 것이라고 하므로, 武帝는 기뻐하며 이들을 만나기를 바라면서 동쪽해상에 이르러 바라보면서 봉래와 만나기를 원했다고 하였다.⁴⁸⁾ 이처럼 한대에도 선인은 우리 쪽에 있는 것이었다.

경상남도 남해군 금산에는 秦제국이 문자를 통일하기 이전의 문자로 된 磨崖石刻이 있는데, 내용은 “徐市이 일어나 日出에 대하여 禮를 올렸다.”⁴⁹⁾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제주도 서귀포시의 정방폭포에도 “徐市이 이곳을 지나갔다.”⁵⁰⁾고 쓴 마애석각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道敎의 기원이 老聃이나 莊周가 언급한 仙人, 至人, 真人, 賢人, 聖人 등에 있다

45) “既已, 齊人, 徐市等上書, 言海中有三神山, 名曰, 蓬萊, 方丈, 瀛洲, 仙人居之. 請得齋戒, 與童男女求之. 於是遣徐市發童男女數千人, 入海求仙人.”(『史記』卷6「秦始皇本紀」, 「秦始皇28年」條)

46) 기록의 三神山에 대한 주석으로 실린 『史記正義』. “『漢書』, 『郊祀志』云, 此三神山者, 其傳在渤海中, 去人不遠, 蓋曾有至者, 諸山人及不死之藥皆在焉.”(『秦始皇本紀』, 「秦始皇8年」條)

47) 기록의 仙人에 대한 주석으로 실린 『史記正義』. “『括地志』云, 亶洲在東海中, 秦始皇使徐福將童男女入海求仙人.”(『秦始皇本紀』, 「秦始皇28年」條)

48) 『史記』卷12「孝武本紀」.

“天子既已封禪泰山, 無風遇笛, 而方士更言蓬萊諸神山若將可得, 於是上欣然庶幾遇之, 乃復東之海上望, 冀遇蓬萊焉.”

49) “徐市起, 禮日出.”

50) “徐市過此.”

하여, 신선사상은 중국에서 기원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조선의 선인사상이 중국에 전파되어 중국의 삼국시대 이후에 도교가 종교로 성립하면서 중국의 전래사상과 혼합하여 신선사상으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黃帝內經素問』 「上古天真論」에서는 眞人과 至人을 등장시켜 이상향을 그리고 있다. 이들은 모두 죽음을 초월하고서 영원히 사는 자들로서, 현실적으로는 결코 가능하지 않다. 『內經』은 秦·漢代에 이루어졌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장생불사한다는 희망도 근원을 캐다면 우리나라에서 시작되었다.

仙敎는 분명히 古朝鮮에서 시작하였지만 수행방법이 무엇이었는지는 안타깝게도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⁵¹⁾

2-5. 鍼術

『素問』 「異法方宜論」에서는 중국을 동서남북과 중앙으로 구분하고 각 지역의 자연환경과 그곳의 사람들이 잘 걸리는 질병 및 이에 대한 치법을 논하였다.⁵²⁾ 동방에는 물고기와 소금이 많이 나고 바닷가이고 물가이므로 사람들은 풍기가 많이 난다. 돌침으로 이를 치료하였으니 돌침의 기원은 동쪽이라고 하였다.⁵³⁾

동쪽이 의미하는 바는 『內經』이 지어진 때와 그 당시 중국의 동쪽국경선을 밝힌다면 명확해진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內經』은 秦·漢代에 걸쳐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진·한대의 중국은 동쪽으로는 황해와 발해에 이르고, 북쪽은 碣石山과 滌河이었다. 衛滿朝鮮이나 漢四郡은 남해동쪽도 일부 차지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고조선과의 국경이었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황해나 발해안이 소금과 물고기가 풍부하고 그곳의 사람들이 소금과 물고기를 먹고 지내므로 풍기가 많이 발생하여 돌침으로 치료하였다.

51) 의학을 치료, 예방, 양생 3단계로 나누는 것과 양생을 현실론과 이상론으로 구분하는 것 그리고 선교에 대하여서는 김인락. 『東洋醫學의 生死論 研究』. 慶熙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9.와 신순식 외8명. 『한국한의학사 재정립』. 한국한의학연구소, 1995.에서 김인락이 쓴 「상고시대의 의학」에서 자세히 논의가 되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몸과 마음을 구분않고 지금의 삶을 영구히 계속하려했다는 점이다. 결코 영혼이라던가 내세란 개념은 없었다.

52) 『內經』에서는 세상을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 이 셋으로 나누어 보았다. 天時. 地理라고 하듯이 하늘은 시간을 땅은 지역을 대표한다. 『內經』이 지어진 때가 秦·漢代인데 이 때에는 이미 중국이 통일을 이루었고 漢族으로 단일화되어있었다. 따라서 인간 개개인의 능력과 체질이 다르다 할지라도 인간이란 큰 범위안에서 다를 뿐이다. 사람이 아무리 이동한다고 할지라도 중국내에서의 일이다. 따라서 가만히 있어도 끊임없이 변하는 것은 시간이다. 1년을 봄, 여름, 장마철, 가을, 겨울로 파악하고 인간에게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를 肝. 心. 脾. 肺. 腎 五臟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內經』에서는 시간이 위주가 된다. 「異法方宜論」은 『內經』에서 지역에 따른 질병과 치법을 논한 유일한 것이다.

53) “故東方之域, 天地之法始生也, 魚鹽之地, 濱海傍水. 其民嗜魚而食鹹, 皆安其處, 美其食, 魚者使人熱中, 鹽者勝血, 故其民皆黑色疎理. 故其病皆爲癰瘍, 其治宜砭石, 故砭石者亦從東方來.”

이처럼 『內經』은 중국인들에 의하여 지어진 것이고 『異法方宜論』은 중국의 영토에 대하여서만 언급을 하였으므로 중국과 국경을 접하던 고조선에 대하여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들과 국경을 접한 고조선도 해안선이 발해였으므로 이런 질병들과 치료술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⁵⁴⁾

『山海經』, 『東山經』에서는 중국의 동쪽에 있는 산들을 소개하면서 “다시 남쪽으로 400리 내려 가면 고씨산이란 곳이 있는데, 그 산위에서는 옥이 많이 나고 기슭에서는 돌침이 많이 난다.”⁵⁵⁾고 하였다.

『東次二經』에서도 “다시 남쪽으로 500리를 가면 부려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산위에서는 금과 옥이 많이 나고, 기슭에서는 돌침이 많이 난다.”⁵⁶⁾고 하였다.

『山海經』에서는 돌침에 대한 기록은 동방의 산에서만 찾을 수가 있으며 산기슭에서 많이 난다고 하였는데, 이는 돌침을 만들 재료이지 완제품은 아니었을 것이다. 晉의 陳壽가 쓴 『三國志』에 의하면 挹婁는 肅慎의 옛이름인데 광대사리로 화살을 만들고 靑石으로 화살촉을 만들었으며 화살촉에는 독약을 발랐다고 하였다. 그리고 중국에 사신이 갈 때 돌로 만든 화살촉을 가져갔다는 기록도 있다.

편석이 증기를 치료하기 위하여 살을 가르는 것이므로 청석으로 만든 화살촉과 닮은 데가 있다. 따라서 돌을 가공하여 돌침으로 만드는 기술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⁵⁷⁾

III. 結論

고조선시대의 기초의학을 陰陽論, 五行論, 心身論, 仙敎, 鍼術 5가지로 연구범위를 한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

1. 陰陽論은 음양이란 용어에 초점을 두지아니하고 음양의 내용에 초점을 둔다면 壇君史話에서 찾을 수가 있다. 桓因은 하늘의 신이고 熊은 땅의 신이다. 환인의 아들 桓雄은 지차아들이므로 땅으로 내려와 얇다옴소한 남자가 된다. 웅은 동굴속에서 순음을 유지하고, 마늘과 썩만 먹으므로 땅으로 나와 음다양소한 여자가 된다. 이들이 혼인하여 단군왕검이 태어난다. 음은 수동적이고 양은 능동적이며 각자 자신의 가치가 있음을 보여준다.

2. 五行論은 궁술에서 찾을 수가 있다. 활과 화살을 만드는 재료인 대나무, 물소뿔, 소심줄, 참나무, 민어부레풀, 화피, 꿩깃털 등은 모두 오행에서 木에 속한다. 활을 쏘는 계절과 보관하는 장

54) 앞으로 이 지역에서 돌침이나 기타 의료용구들이 출토되고 제작연대가 2000여년 이전으로 판명한다면 이것은 중국의 것이 아니라 고조선의 것으로 보아야 한다.

55) “又南四百里, 曰高氏之山, 其上多玉, 其下多箴石.”(『山海經』 卷4 『東山經』)

56) “又南二百里, 曰鳧麗之山, 其上多金玉, 其下多箴石.”(『山海經』 卷4 『東次二經』). 안타깝게도 부려산이 현재의 어디를 가리키는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앞의 고씨산도 마찬가지이다.

57) 신순식 외8명. 『한국한의학사 재정립』. 한국한의학회연구소, 1995.에서 김인락이 쓴 「고조선시대의 의학」에서 자세히 논의가 되었다.

소도 모두 따뜻한 봄날씨여야 한다. 궁술의 자세에서 非丁非八과 腹實이 신수에 관한 것이고 흉허는 심화에 관한 것이며 전추태산은 간목, 발여호미는 폐금에 관한 것이다. 횡경막을 중심으로 아래는 힘을 주고 위로는 힘을 주지 아니하는 것 등은 오행에 충실하다.

3. 心身論은 무당이 굿을 하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 는 밖에 있는 신을 몸속으로 불러 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흉을 뜯구어 몸속의 상태를 신이 들뜬 상태로 만든다. 효력면에서는 고조선사회를 지탱한 힘 3가지중 종교력도 하나이므로 지금보다도 더 효과가 컸으리라 본다.

4. 仙敎는 의학을 치료, 예방, 양생 3부분으로 볼 때 양생에 해당한다. 그이고 양생은 현실론과 이상론 2가지가 있는데 선교는 이상론에 속한다. 이는 몸과 마음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현재의 삶 그대로 영원히 살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이 중국에 건너가 신선사상으로 발전하였다.

5. 鍼術은 고조선에서 발해만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고 본다.

참고문헌

1. 『老子』
2. 『論語』
3. 『三國史記』
4. 『三國遺事』
5. 『三國志』
6. 『列子』
7. 『帝王韻紀』
8. 『周禮』
9. 『黃帝內經』
10. 김용운. 『한국수학사』. 서울: 열화당, 1982.
11. 김인락. 「肝者 罷極之本에 對한 五行論的 解釋」. 『대한원전의사학회지』, 1994.
12. 김인락. 「東洋醫學의 生死論 研究」. 慶熙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9.
13. 김인락. 「상고시대의 의학」. 『한국한의학사 재정립』. 보건복지부연구개발사업, 한국한의학연구소, 1995.
14. 유동식. 「한국무교의 역사와 구조」.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85.
15. 윤내현. 『고조선연구』. 서울: 일지사, 1994.
16. 최봉열 역. 『한국상고사』. 서울: 교보문고, 1994.
17. 白楊. 「如何理解“春不沈, 夏不弦, 冬不澁, 秋不數, 是謂四塞”」. 『雲南中醫雜誌』, 1985.